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론

출판사들은 다양한 결텍스트¹⁾를 통해 텍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고, ‘홍보’한다. 번역 과정에서는 이 같은 결텍스트의 기본 기능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형식과 내용은 변화하게 된다. 즉, 원문에 있는 “헌사나 제명, 편집자 각주까지도 번역이 되면 모두 텍스트가 되어”(지영래·박선희 2010: 254) 버리는 반면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결텍스트가 추가되기도 한다. 번역에 나타나는

1) 결텍스트는 “주변텍스트와 후텍스트로 다시 구분되는데 주변텍스트가 공간적으로 같은 책 속에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편집과 관련된 즉, 저자명, 헌사, 제사, 서문 및 각주 등의 요소를 말한다면 후텍스트는 책을 둘러싸고는 있지만 책 자체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자면 저자와의 인터뷰나 그의 편지, 일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지영래·박선희 2010: 250, Gerard Genette 1987 재인용).

새로운 결텍스트에는 도착어권 독자를 위한 새로운 주석, 헌사, 역자후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번역서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결텍스트는 역자후기라 할 수 있다. 김영신에 의하면 “역자후기는 원천텍스트의 독자이면서 번역 텍스트의 생산자인 번역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번역 작업에 대한 소회, 번역 전략, 원천 텍스트에 대한 서평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2012: 11)이다. 대부분은 ‘작품해설’이라는 제목으로 권말에 소개된다. 역자후기는 내용상 크게 원천텍스트(ST) 중심의 작품/작가 설명과 목표텍스트(TT) 중심의 번역과정, 전략에 대한 소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자후기 관련 많은 연구들(전현주 2009; 지영래·박선희 2010)은 이 둘을 함께 연구했다. 하지만 소위 원천텍스트와 저자에 대한 해설이 주(主)가 되는 부분과 번역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역자후기 내에서도 작업에 임하는 번역사들의 감정과 번역 문제, 번역 과정 등 목표텍스트 관련 내용으로 연구 범위를 좁혀 잡았다.

절차 면에서는 우선 후기를 적극적으로 쓰는 번역사나 출판사들을 알아내 그들의 성격을 밝히고, 두 번째로 후기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번역을 둘러싼 독자, 다른 번역사, 비평가, 연구자, 출판계 등 각종 주체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출판사나 번역사들은 효과적인 후기를 활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 선정은 번역품질을 인정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리번역, 편의에 의한 공동번역, 중역, 베끼기 번역, 지나친 오역 등으로 얼룩진 품질이 낮은 번역본에는 작품해설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번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이 존재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은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판매 실적이 좋은 판본에서만 역자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현주는 “역자후기는 독서동기 유발과 번역과 번역전략 그리고 작품과 현실의 접목 등 작품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번역작품에 대한 품질보증 측면에도 기여하므로 결국 책의 완성도를 높여 줄 수 있다”(2009: 216)고 하면서 후기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번역품질에 대해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역자후기의 유무는 본질상 번역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역자후기가 있는 작품은 번역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도 번역의 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번역에 대한 후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번역서, 특히 문학번역서에는 내용 요약, 작품해설, 작가해설 등 원천텍스트와 관련된 설명은 있어도 역자 서문동기, 번역론, 번역전략 등 번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현주 2009: 216). 이처럼 자신의 작업 과정에 대한 후기를 쓰는 것은 능력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인 동시에 번역사의 불가시성(translator's invisibility) 규범에서 벗어나는 가시적(visible) 행위라는 점에서 번역과정에 대한 후기를 쓴 번역사들은 왜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최근 번역본 중 수준 높은 번역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터넷 서점 등에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번역본, 인터넷 서점 출판사 리뷰에서 심도 깊게 번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번역본,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역량 있는 번역사들의 개역판 등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정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학번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문학번역은 번역사의 문체 해석, 언어적 문화적 전달의 어려움과 번역 전략 선택문제 등으로 많은 번역 논쟁의 중심이었고 최근 영미연 평가단의 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번역사의 목소리는 함께 연구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번역 비평에서 번역사는 비평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했고, 학계 전반에 번역의 주체인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했다. 후기에 나타난 번역사의 심경과 번역방법 등을 관찰함으로써 학계에서 벌어지는 논의와 번역사들이 실제로 겪으며 생각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향후 번역 이론과 실제의 상호발전 가능성”(Dimitrius 2009: 193)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역자후기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체스터만(Chesterman)은 번역 연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뒤에 번역사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번역사를 중요한, 혹은 하나의 구

분된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즉, 번역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사는 그동안 번역 연구 뿐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나 현상 담론 차원에서도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는 베누티(Venuti)가 주장한 “번역사의 불가시성”(1995)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려하고 목표어 텍스트처럼 읽히는 번역이 선호되는 풍토에서 번역사의 존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베누티는 적극적인 이국화 번역전략을 취해 자민족 중심의 번역 폭력을 억제하는 주장을 하였다. 베누티의 주장처럼 텍스트를 통한 이국화 번역전략은 번역사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번역사들은 단지 번역 행위 뿐 아니라 다양한 결텍스트와 텍스트 외적인 통로를 통해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내 가시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실제로 번역학의 흐름을 보면 “가시성 연구가 텍스트적 가시성에서 점차 결텍스트적 가시성과 텍스트 외적 가시성으로 확대”(유한내 2013: 104)되고 있으며, “번역사의 텍스트내에서의 가시성은 더욱 확장되어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social visibility)으로 확산”(김영신 2012: 9)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번역과정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하는 번역사는 많지 않았다”(Munday 2001: 152). 기록을 하더라도 그것이 체계적이기보다는 “상투적이고 모호한”(152)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번역학계에서 사용하는 최신 용어, 이론 등을 사용하기 보다는 17세기 서적에서나 볼 수 있는 어휘를 썼고 두서도 없었다. 내용도 고전문학에 대한 재번역이나 개정판 출간에 부쳐 번역상 오류, 원문 이해 부족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32). 먼데이의 주장처럼 역자후기는 기능상 체계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그 내용은 이론가, 학자, 동료들에게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 예를 들어 ST작가의 작품과 문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 현지답사를 하며 번역할 시를 읽어보는 경험을 한 내용이나 번역 과정에서 여러 벌의 초고를 작성하는 것 등 “번역사 자신의 배경이나 연구, 글쓰기 과정”(32)을 밝히는 것은 번역가의 작업과정 관련 이론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번역에 투입된 이런 노력은 산발적인 이야기로 작품 뒤에 묻히고 가시성을 잃는다. 번역사와 번역과정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학자들은 번역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과

정에 역자후기를 포함한 결텍스트를 연구를 포함시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번역사가의 가시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번역가들에게도 더 체계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2. 선행연구

번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던 학문적, 실제적 역사 속에서 유명한 ‘번역학 분류도’를 설계한 홈즈(Holmes)조차도 번역사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을 정도로 번역사는 비가시적 존재였다. 그러나 최근 번역학계에서는 ‘번역사’를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으며 체스터만 같은 학자들도 “번역사학이라는 새로운 하위범주가 생성되고 있다”(2009: 13)고 말하고 있다. 번역사와 통역사에 관한 연구인 번역사학이 번역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 중 하나인지 독자적인 하위범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지만 번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현상이다. 체스터만은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결국 번역 사회학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 될 것이라며 사회학적 접근의 틀을 번역 사회학(translation sociology), 번역사 사회학(tranlator's sociology), 번역 과정/행위 사회학(translating sociology)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번역사 사회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 되는데 첫째, 번역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 즉, 지위, 보수, 작업환경, 역할 모델, 아비투스, 전문기구,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저작권 등과 둘째, 번역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즉 언론, 문학작품, 영화 등 대중의 눈에 비치는 번역사의 모습, 셋째, 번역사들 자신들이 에세이, 인터뷰, 역자후기, 각주 등을 통해 작업과정에 대해 밝히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역자후기는 이 중 세 번째인 번역사들이 스스로의 작업과정에 대해 밝히는 부분에 포함되며 번역사 스스로 가시성을 높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중 전현주는 번역사의 비가시성을 중심으로 비문학도서 13종, 문학도서 8종의 역자후기 분석을 했으며, “역자후기는 독서동기 유발과 번역과 번역전략 그리고 작품과 현실의 접목 등 작품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번역작품에 대한 품질보증 측면에도 기여하므로 결국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2009:

216)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에 의하면 역자후기를 쓰는 행위의 장점이 많음에도 후기가 있는 번역서는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번역의 경우 번역방법과 번역과정 등 TT 관련하여 번역사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ST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전현주는 비평가, 학자, 독자들의 시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번역사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스스로 존재감을 감추려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역자후기 작성을 포함하여 번역사의 가시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억압되는 이유로 베누티의 이론에 근거하여 혼질성(heterogeneity), 원저자성(authorship), 문화적 정체성, 상업적 착취 등 번역사를 주변적인 위치에 놓는 문화와 스스로의 굴레 등을 들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의 역자후기를 함께 분석한 전현주(2009)의 연구와 달리 지영래와 박선희(2010)는 『마담 보바리』라는 하나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역자후기 뿐 아니라 책표지, 역자후기, 작품해설 등 텍스트를 둘러싼 주변텍스트의 위상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학번역 출간이 활기를 띠고 품질 좋은 번역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시대’에는 역자후기를 포함한 결텍스트의 내용과 수준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학번역이 부흥하는 시기에는 번역사의 책임과 권한이 증대되면서 “자신의 번역에 관심을 쏟는 전문번역가”(261-262)들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작품해설과 후기가 실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역자후기의 작성을 통한 존재감 표현은 번역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출판 환경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의 가시성 제고는 번역 품질 제고, 사회적 인식 향상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결텍스트는 결국 번역평가나 독자들의 번역이해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영신(2012)은 번역 사회학적 관점에서 번역사들이 역자후기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역자후기를 통해 번역사들이 자신들의 작업과정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 텔로스(telos), 출판사와의 역학관계, 자기 인식, 번역사의 눈에 비친 원저자 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의 두 연구는 역자후기의 기능, 내용, 번역품질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면 김영신의 연구는 결텍스트를 통해 번역사

들이 드러내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

유한내(2013)는 정영목 번역사의 『로드』 번역에 대한 신문 기사, 인터뷰, 수상소감 등 번역서의 후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을 살펴보았다. 유한내 연구의 특징은 ‘정영목’이라는 한 명의 번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과 텍스트 내의 서문, 띠지, 표지, 역자후기 등 주변텍스트를 뛰어 넘어 후텍스트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후텍스트를 통해서도 번역사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위치, 그리고 사회적 역학관계 등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순미(2013: 23)는 『위대한 개츠비』 김영하와 김옥동 번역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번역사들이 역자후기, 띠지, 출판사의 홍보 문구, 인터넷 서점 출판사 리뷰 등 다양한 주변텍스트와 후텍스트를 통해 독자들, 언론, 학계 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김순미의 연구는 유한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변 텍스트 뿐 아니라 후텍스트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결텍스트들이 번역사와 출판사가 번역 전략을 홍보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독자들을 끌어 모으며,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을 하는 도구로서 『위대한 개츠비』를 둘러싼 결텍스트의 역할은 향후 다른 출판사의 홍보전략 구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번역전략을 밝히는 것이 독자와 비평가들의 텍스트 이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현주와 김영신의 연구는 문학 비문학을 망라한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역자후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반면 지영래와 박선희, 유한내, 김순미의 연구는 『마담 보바리』, 『로드』, 『위대한 개츠비』 등 단일 문학번역 텍스트, 혹은 단일 번역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결텍스트를 분석하였다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결텍스트를 통한 번역사의 목소리내기에 관심을 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역자후기는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텍스트적, 사회적 가시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도구가 되며 번역가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번역환경과 번역사의 후기작성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본고는 결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번역가의 가시성에 대한 위의 연구들을 더 확장시키려 한다. 우선,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역자후기를 쓰는 번역사, 출판사가 다른 번역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연

구보다 훨씬 방대한 역자후기 실제사례 분석을 통해 후기의 구체적 내용을 분류한 후 이것이 번역에 관련된 다른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가능성을 고찰하려 한다.

3. 분석 텍스트 선정과정과 성격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번역사는 ‘작품해설’ 부분에서 작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감상 방법을 주로 다룰 뿐 번역에 대해 언급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문학전집 발간이 붐을 이루고 출판사마다 원문에 충실한 완역본을 출간하여 내놓는 과정에서 우수한 번역 품질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김순미 2013). 본 연구는 역자후기 중 특별히 번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24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역 17분의 경우 후기는 보통 ‘작품해설’ 뒷부분에 실렸으나 개역본 7분의 경우 <개정판에 부쳐>, <다시 번역하며> 등 제목으로 권두, 권말의 구별된 장에 실렸고 번역 관련 내용설명도 초역보다 훨씬 상세하고 길었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역자후기 연구는 번역품질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번역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미연 번역평가에서 추천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참조본으로 선정된 작품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번역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 번역계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연에 선정된 작품 중에도 역자후기가 있는 번역본은 많지 않았다. 영미연 추천본 중에는 강승영의 『월든』, 김종길의 『폭풍의 언덕』, 김옥동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위대한 개츠비』, 유명숙의 『위더링 하이츠』, 유종호의 『제인 에어』, 이인규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등 7편, 참조본 중에는 김옥동·염경숙의 『호밀밭의 파수꾼』 한편을 선택했다²⁾. 간혹 현재

2) 영미연 추천본 선정 이유

*유명숙역 『위더링 하이츠』 (을유문화사) “이 번역본은 다른 번역본들에 비해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번역의 누락이나 첨가가 거의 없고 구문의 파악이나 상황의 전달이 원문에 충실한 편이다.”(358)

*이인규역 『채털리 부인의 사랑』 (민음사) “원문의 구체적인 대목들의 어법과 상황을 정확히 옮기면서도 원작의 문체와 의도를 제대로 살려 번역한 믿을 만한 번역서

연구의 출판사명과 영미연에 실린 출판사명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미연 평가 시기와 현재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번역자들이 출판사를 옮겨 개역본을 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정 대상은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지수가 높고 출판사 리뷰에도 번역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번역본으로 윤지관·전승희의 『오만과 편견』, 김진준의 『롤리타』, 김영하의 『위대한 개츠비』, 김옥동의 『노인과 바다』, 이인규의 『노인과 바다』 등 5편이었다.

세 번째로는 개역판 중에서 번역과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인지도, 판매지수가 높았던 이윤기의 『장미의 이름』과 『그리스인 조르바』, 강명순의 『향수』, 이미애의 『호빗』 등 4편이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문학작품의 번역을 하고 번역으로 인정을 받는 번역사의 작품 중 역자후기가 있는 것으로 안정효의 『대지』, 김석희의 『하루와 이야기 바다』, 이덕형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전영애의 『데미안』, 손영미의 『거울 나라의 엘리스』, 김경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 7편이다.

는 최근(2003년) 출간된 이인규 역본 하나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72)

*김종길역 『폭풍의 언덕』(민음사) “결정적인 누락과 첨가가 없고 원문의 세세한 내용에 충실하며 또한 우리말 구사가 자연스러워 일기에 편안한 번역본이다.”(348)

*유중호역 『제인 에어』(민음사) “모든 번역본 가운데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다.”(334)

*강승영역 『월든』(은행나무) “강승영 역본은 소소한 오류나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충실도나 가독성, 적절성 면에서 현대 독자들이 읽기에 가장 나은 역본이라 할 수 있다.”(53)

*김옥동역 『허클베리핀의 모험』(민음사) “미발표 원고에 기반해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118)

*김옥동역 『위대한 개츠비』(민음사)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이 번역본은 여타 번역본에 비해서 탁월하며 정확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134)

영미연 참조본 선정이유

김옥동/염경숙역 『호밀밭의 파수꾼』(현암사) “김옥동/염경숙 역본은 정확성, 적합성, 적절성 등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번역본이다.”(237)

이렇게 선정한 분석본은 24편으로 출판사별로 분류해 보면 민음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동네 4편, 열린책들 3편, 문예출판사 2편, 시공주니어 2편 그리고 비룡소, 을유문화사, 은행나무, 씨앗을 뿌리는 사람, 현암사 등은 각 1편이었다. 민음사의 경우는 세계문학전집출간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문학동네 또한 세계문학 출간에 열정을 가지고 최근 『위대한 개츠비』, 『롤리타』, 『노인과 바다』 등 화제의 번역서를 다수 출간했기 때문에 편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포함된 번역사는 총 20명으로 김육동의 작품이 4편(허클베리핀의 모험, 호밀밭의 파수꾼 공역, 위대한 개츠비, 노인과 바다)이었고 그 외에는 이윤기 2편(장미의 이름, 그리스인 조르바), 김경미 2편(허클베리핀의 모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인규 2편(채털리 부인의 사랑, 노인과 바다)을 제외하고는 김종길(폭풍의 언덕), 유종호(제인 에어), 윤지관(오만과 편견 공역), 전승희(오만과 편견 공역), 전영애(데미안), 김영하(위대한 개츠비), 김석희(하룬의 바다), 유명숙(위더링 하이츠), 손영미(거울나라의 엘리스), 강명순(향수), 안정효(대지), 이덕형(허클베리핀의 모험), 강승영(월든), 이미애(호빗), 김진준(롤리타) 염경숙(호밀밭의 파수꾼 공역) 등 한 권씩이었다. 무작위로 선정한 작품들 중에 김육동 번역본이 4권이나 포함된 것은 번역을 알려야 한다는 그의 사회적 책임감과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

한편 <부록>에 실린 번역사들의 직업군과 출신 대학 등을 중심으로 대상 번역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명 중(김육동 등 한 번역가의 여러 작품이 포함되었기 때문) 교수, 강사, 대학 연구원 등 학교에 몸담고 있는 번역사가 12명(60%), 전문 번역사 7명(35%), 소설가 1명(5%) 등 예상보다 교수의 비율이 전문번역사 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24본의 인기도와 번역 품질,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할 수 있는 본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지영래·박선희(2010)가 밝혔듯이 한국의 문학번역 출판업계에서는 인지도 높은 교수들에게 번역을 맡기고 그들의 약력을 “홍보”(263)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교수의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문 번역사들보다 교수들이 번역에 대한 소회나 방법을 알려야 할 필요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다. 교수들은 번역사이기 이전에 교육자이자 이론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작업 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자신의 위상에 대한 확신도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자후기를 쓴 번역사 20명 중 11명이 서울대로 서울대 출신 번역사들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다.

〈표 1〉번역과정 관련 역자후기를 쓴 20명 번역사의 직업 분포도

직업	수	비율
교수	12	60%
전문번역가	7	35% (25%)
소설가	1 (3)*	5% (15%)*

*안정효, 이윤기는 전문번역가이나 작가로도 활동하였다. 김영하, 안정효, 이윤기를 모두 소설가로 분류하면 3명이 된다.

아동문학은 『거울 나라의 엘리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하루와 이야기 바다』 등 세편이었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아동문학 작품은 성인과 아동 이중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은유적 표현, 언어유희 등이 가득해 번역사의 번역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번역후기가 있는 세 작품을 골라 분석에 추가하였다. 영미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불어, 독일어 등의 번역본 중에서도 『향수』, 『데미안』 등 실력을 인정받은 번역사들이 번역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4. 후기 내용과 기능

번역후기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번역과정에서 느낀 소회, 번역을 결심하게 된 동기 등 ‘감정’과 관련된 부분, 번역/재번역 과정에서 쏟은 구체적인 노력과 참고 문헌, 외부 도움 등 ‘과정’ 부분, 번역서의 원문에 대한 설명, 포괄적, 구체적 번역문제와 해결안 등 ‘번역전략’ 부분, 마지막으로 ‘번역비평’ 관련 부분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표 2〉 번역후기 내용

후기 내용	세부 내용
번역 과정의 감정	번역 맡은 소회, 추억
	번역 동기
	작업 과정 중 심경
	번역 후 심경
번역 과정과 환경	작업의 구체적 내용
	작업 환경, 현지답사
	공역 내용
	출판사 등 외부 주체들의 도움
번역 원문 판본	판본 설명
번역 문제와 해결방법	언어유희, 고유명사, 이탤릭체, 비속어, 방언 등
번역 비평과 번역관	중역, 운문, 표절 등 문제, 충실성

4.1. 번역 심경

우선 번역사의 감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하위 범주는 번역을 맡기 전후 과정에서 느낀 감정, 번역을 결심한 동기, 번역과정의 심경, 번역을 마친 후의 심경 등이다. 번역 전이나 번역을 맡은 때의 감정과 번역을 결심한 동기를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는 번역 기회가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느낀 감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나 출판사가 자의적으로 번역 결심을 하게 된 심경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4.1.1. 번역을 맡은 감정

〈표 3〉 번역을 맡은 감정

감정	내용	번역사/ 출판사
추억 감동	이 책을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을 꺼내 보니 종이가 누렇게 변색하고 모서리가 푸석푸석 떨어져 나가 번역이 다 끝났을 때쯤에는 너덜너덜해져 버려야 할 정도가 되었	안정효/ 문예출판사

	다. 하지만 그 삭아버린 책 속에 담긴 글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감동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대지 474)	
추억 감동	대학을 졸업하고, 월남전 참전과 미국 유학 그리고 직장 생활과 사업 등으로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월튼은 저의 최고의 애독서이며 인생의 지침서이자 삶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늘 아쉬웠던 것은 이 경이로운 책을 아름다운 한국어로는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튼 <결정판을 내면서> 7)	강승영/ 은행나무
추억 설렘 걱정언젠가 이 작품을 우리말로 제대로 옮겨 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흐른 뒤 정말로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허클베리 핀’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옮겨 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485)	김경미/ 시공주니어
망설임 책임감	이미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라 번역 제의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망설였다. 하지만 기존 번역들이 정확성과 가독성에서 개선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번역이 나름대로 의미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노인과 바다 144-145)	이인규/ 문학동네
망설임 책임감	이미 많이 번역된 작품을 다시 번역한다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다. 그러나 바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 아는 터라, 이 작은 책에다 그 어떤 대작의 번역보다도 더 힘을 쏟았다. (데미안 232)	전영애/ 민음사
안도함 부담감	그러던 차에 마침 출판사에서 개역판을 내기로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작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모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초역 출간 후 그동안 아쉽게 느끼고 있던 부분들을 손질함으로써 가슴속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수 <『향수』를 다시 번역하며> 382)	강명순/ 열린책들

위의 표를 보면 번역사들이 번역을 맡게 되었을 때의 감정은 크게 과거에 대한 추억, 기대/설렘, 책임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역의 경우 즐겨 읽던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했던 시절을 그리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강승영, 김경미, 안정효) 작가의 작품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걱정하기도 하며 (김경미), 다른 번역사들보다 더 충실하고 가독성 높은 번역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이인규, 전영애). 초역과 달리 재번역 의뢰를 받았을 때의 심경은 더 복잡적이었다. 『향수』를 번역한 강명순은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게 되

어 “다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오역에 대한 부담감과 강한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4.1.2. 번역이나 재번역을 스스로 결심한 심경

위의 예들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번역을 맡은 시기의 감정이라면 다음은 ‘스스로’ 번역 혹은 재번역을 결심하게 된 시기의 감정이다. 재번역과 초역의 계기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번역이나 재번역을 결심하게 된 심경

목적/계기	내용	번역사/ 출판사
재미있는 번역에 대한 욕구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 죄 없는 확신범, F. 피츠제럴드의 <u>번호를 기꺼이 맡겠다고 결심했다</u> .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인 고등학생들에게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피츠제럴드를 대신하여 <u>‘줄라 재미없는 소설’이라는 원고의 터무니없는 논고에 항변하고</u> ,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원고인 고등학생 독자의 악의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1920년대와 2000년대라는 팔십 년의 격차, 한국어와 영어의 어쩔 수 없는 다름 때문이라고 변론하려 했던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 229)	김영하 /문학동네
충실하고 믿을만한 번역에 대한 욕구, 책임감	워낙 영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진 작품인지라 그 당시에도 이미 번역본들이 여러 종 나와 있었지만, <u>번역서만으로 작품의 정확한 뜻과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많았다</u> . 대학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작품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참고할 수 있는 번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아울러 널리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작품이 될 수 있는 대로 본 모습에 충실하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공자로서의 의무감도 한몫을 하였다. (오만과 편견 557)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오류수정	나는 나의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는 중에, <열린책들>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용감한 제안을 받고 여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장미의 이름<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1)	이윤기 /열린책들
언어적 변화수용 / 함량미달 번역풍토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한 나라 언어도 아니고 두 나라 언어를 매체로 삼고 있는 번역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중략) 판본이 선두 개나 된다고는 하지만 남의 번역본을 <u>윤문하거나 표절할 것이 상당수이다</u> . (중략) 그래	김옥동 /민음사

개선	서 나는 이번 기회에 초판 번역본을 개정하기로 결심했다. (위대한 개츠비<개정판에 부쳐> 10)	
사투리 등 수정	번역자는 1998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워더링 하이츠를 냈지만, 사투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 등등 아쉬움이 남아 전면 개고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폭풍의 언덕 568)	유명숙 /을유문화사

처음 두 후기는 우리 문학번역 현실에서 기존의 번역본들이 재미가 없거나 함량 미달로 독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직접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경우이다. 소설가 김영하의 경우 후기에서 더 재미있고 현대적인 언어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듯 현대의 20-30대들이 사용하는 대화체와 경어체 사용을 통해 ‘재미있고’, ‘인물이 선명하게 잡히는’ 번역을 함으로써 젊은 감각의 개츠비를 탄생시켰다. 두 번째 윤지관, 전승희 경우도 교수로서 학생들에 좋은 책을 읽히겠다는 매우 확실한 번역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결심은 역자후기 뿐 아니라 예스 24 인터넷 서점의 출판사 리뷰³⁾에도 드러나고 있다. 출판사 리뷰에 ‘번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실린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민음사는 “영미연의 36종 판본에 대한 평가에서 추천본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충실하고 믿을만한 번역본”을 만들게 되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민음사에서 번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출간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을 볼 때 번역 전략 수립과 홍보가 번역품질 향상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가지 개정판의 후기는 위와 달리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번역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즉, 번역가들은 이윤기와 같이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혹은 김옥동과 같이 변화된 시간과 환경에서 작품에 수정을 하기 위해 재번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단, 김옥동은 자신 번역의 언어적 문제 뿐 아니라 번역계 전체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명숙은 오역보다는 사투리 번역 등에 좀 더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개정판을 낸다고 밝혔다. 초역이었을 때에도 시중에 90여종이 넘게 나와 있는 폭풍의 언덕 번역본 중 유명숙본은 단연 최고 수준의 번역으로 영미연의 추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치열한 노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좋은 번역을 만들

3) <http://www.yes24.com/24/goods/402246?scode=032&OzSrank=1>

어 내려는 그의 열의를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번역사들의 뚜렷한 목표 의식과 번역 품질 사이에, 그리고 번역 품질과 비평가, 독자들의 작품 수용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번역사들은 번역을 착수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4.1.3. 번역 과정의 감정

〈표 5〉 번역 과정의 감정

주제	내용	번역사/ 출판사
어려움/ 목표의식	막상 번역 작업은 수월치가 않았다. 오랫동안 버르던 일인지라 잘 번역해야겠다는 욕심도 만만치 않아서 초고 자체가 늦어진 데다가...(중략) (오만과 편견 558)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목표의식	어쨌든 역자로서는 이왕에 하는 것이니 기존의 번역판들보다 한결 나은 번역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작업에 임했고, 이를 위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작품을 번역해 나갔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번역을 내놓겠다는 허욕까지 부리면서 주어진 여건 아래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342)	이인규/ 민음사
어려움 구체적 문제	그러고도 반년이 더 걸렸다. 『롤리타』는 지금까지의 번역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숙제다. (중략) 『롤리타』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은 시종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중략) 번역 작업이 어려웠던 까닭은 물론 텍스트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얼마만큼 드러내고 얼마만큼 감춰야 하느냐, 그 수위조절의 어려움이였다. (롤리타 540-542)	김진준/ 문학동네
어려움 기대감	능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어 원작의 재미를 살리려 했다. 영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만큼이나 우리 독자들에게도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10-211)	김경미 /비룡소
어려움 소용의 문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거나 먹고 입어도 행복해하는 자유분방한 사내아이의 말투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노예제도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어린 독자들이 과연 재미있어할까 걱정도 많았습니다.(중략) 트웨인의 재치 넘치는 언어 구사력은 번역자에게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으나, 번역 작업은 매우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485-486)	김경미/ 시공 주니어

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이인규, 윤지관, 전승희의 경우 다른 번역사들보다 더 나은 번역을 하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 번역사들은 ‘욕심’, ‘허욕’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좋은 번역을 하려는 열정을 보였다. 결국 이인규의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영미권 추천본에 올랐고 윤지관, 전승희의 『오만과 편견』도 최고 판매 지수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진준도 작가의 문체 전달의 어려움에서 온 번역사의 고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해서 탄생한 그의 작품은 대표적인 『롤리타』 번역본이 되었다.

자부심을 표한 위의 번역사들과 달리 김경미의 경우는 독자들의 수용 측면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등장인물의 성격 표현 등을 뛰어 넘어 원작의 독자들이 느낀 것을 번역의 독자들도 느끼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원작에 대해서는 “재치 넘치는 언어구사력”, “재미” 등이라 묘사하는 반면 자신의 능력은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능력과 경험의 부족”, “부적절한 부분” 등으로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의 작가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본인은 최선을 다해 이를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역할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를 짜내어 원작의 재미를 살리려 했다”⁴⁾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려는 훌륭한 번역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승화될 수도 있겠으나 주종관계의 의식의 내재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번역 후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1.4. 번역 후 심경

〈표 6〉 번역 후 심경

주제	내용	번역사/출판사
책의 기여도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은 배금주의 사상과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자기 자신만의 참다운 인생의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이 책이 깊은 정신적 위안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든 <결정판을 내면서> 6-7)	강승영/ 은행나무

4) 김경미의 언어유희는 본 저자가 조사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번역본 8종 중 원문의 ‘재미’를 살려 창의적으로 언어유희 번역을 한 2 명의 작가 중 한 명이었다.

번역의 특징 장담	감히 장담하건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각자 다른 롤리타, 각자 다른 험버트를 만날 것이다. 나는 <u>여러분을 시샘한다</u> .(롤리타 546)	김진준/ 문학세상
부족함 이해부탁 호응기대 감회	역자들로서는 기왕의 번역본들보다 묘사 언어 감각에 더 잘 맞고 더 정확한 번역을 내놓으려고 애썼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곳이 있다면 독자 여러분의 질정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창조적인 협동 작업 속에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역서가 두고두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독자들을 제인 오스틴의 다른 작품들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번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훌쩍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번역을 끝낸 마당에 여러 가지 <u>감회가 새롭다</u> . (오만과 편견 55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부족함 이해부탁 호응기대	하지만 역자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부족한 점이 여전히 적지 않을 테니,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와 질정을 바랄 뿐이다. (중략) 독자들이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역자로서는 큰 기쁨일 것이다. (노인과 바다 145)	이인규/ 문학동네
부족함 이해부탁	하지만 일을 마무리 하고 보니 역자로서 <u>능력의 한계만</u> 절실하게 느낄 뿐,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악역과 오역이 분명 적지 않을 텐데 그저 송구한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용서와 질정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342)	이인규/ 민음사
기쁨 반성 책임감 부담	그러나 새로운 번역본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과연 이러한 평가가 옳은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찬사 때문에 느낀 우쭐한 기분은 잠깐이고 번역자로서 책임감과 함께 심리적으로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다.(위대한 개츠비 <개정판에 부쳐> 10)	김육동 /민음사
기쁨 절망/비참	번역자인 나는 이 소설의 번역 작업과 관련, 숭한 찬사와 질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미의 이름은 내가 낸 1백여 권의 역서 중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준 책이기도 하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준 책이기도 합니다. (중략) 오역과 가공할 만한 넘겨짚기 해석과 줄속과 줄문이 나를 몹시 괴롭히던 즈음인 1990년 나는 <열린책들>로부터 한 권의 책을 넘겨받게 됩니다. (중역) 이 책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나의 오역과 넘겨짚기 해석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이름<개정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0-891)	이윤기 /열린책들
불안감 자위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장미의 이름 관련 서적을 구입, 약 5백 개에 이르는 각주도 달아, 같은 해 개정판을 냈다. 오금 지린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잡초 없는 뜰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스	이윤기 /열린책들

	스로 위로하면서 8년을 보냈다. (장미의 이름<장미의 이름에다 세번째로 손을 대면서> 95)	
수치심 자괴감	매우 부끄러웠다. 이 원고는 무려 3백여 군데의 부적절한 번역, 빠져 있는 부분 및 삭제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다. (장미의 이름<장미의 이름에다 세번째로 손을 대면서> 95)	이윤기 /열린책들
자괴감 감회	그리스인 조르바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0년에 내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당시에는 번역이 썩 잘 된 것 같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들 말했는데 지금 와서 개역하는 심정으로 교열하려니 낯 뜨거운 대목이 적지 않다. 손을 보아 펴내는 감회가 남다르다. (그리스인 조르바<개역판에 부치는 말> 505)	이윤기 /열린책들
독자로서 의 바람	게다가 3년의 세월을 두고 다시 『향수』를 읽어 보니 쥐스킨트의 작가적 역량과 소설의 재미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다. (중략) 때론 험오스럽고, 때론 가련한 인물 그르누이의 행적을 통해 그려지는 향기의 세계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중략)(향수 <『향수』를 다시 번역하며> 382)	강영순/ 열린책들
부담감 오역에 대 한 두려움	그런데 『향수』를 읽는 독자들이 늘어날수록 역자로서 한편으로 심리적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리, 향수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로 인해 나도 모르게 저질렀을 오역들, 또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 작품을 제대로 전달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향수 <『향수』를 다시 번역하며> 382)	강영순/ 열린책들

<표 6>에서 볼 수 있듯 번역사들이 번역 후 느끼는 감정은 초역시보다 개정본을 내놓는 경우에 더 강하고 상세하게 나타났다. 개정본을 내게 된 이유가 수정을 위한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오역 논란, 비난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선 초역 경우를 보면 이인규, 윤지관, 전승희 등과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은 질정을 바라며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승영이나 김진준 등 자신의 번역본이 사회에 미친 기여도나 장점에 대해 말하면서 뿌듯함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이 자신감 있는 번역사들의 모습은 초역, 개역본을 통틀어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은 이인규, 윤지관 등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앞섰다. 번역사 스스로가 부여하는 역할에 대한 위상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개역본의 경우 번역사들의 마음은 훨씬 무거웠다. 예상과 달리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의 번역사나 이윤기, 김옥동처럼 명성 있는 번역사일수록 대중과 전문가의 신랄한 평가 아래 더 큰 상처를 받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윤기의 경우 장미의 이름을 세 차례에 걸쳐 전면 재번역하는 가운데 느낀 감회를 <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과 <장미의 이름에다 세 번째로 손을 대면서>에 상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윤기에 따르면 처음 재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출판사를 통해 『<장미의 이름>의 열쇠 *The Key to the Name of the Rose*』의 일역(日譯)판을 받아들고 자신의 번역의 많은 부분이 오역과 잘못된 넘겨짚기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강유원 박사가 학생들과 철학 강의를 하는 중에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오역들을 발견하고 이를 정리한 메모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번역사는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참하게 만들어 준”, “오금저린”, “괴롭히던”, “스스로 위로하며”, “매우 부끄러웠다”, “낮 뜨거운” 등의 단어에서 번역사가 견디어야 했을 고뇌의 수준을 짐작 할 수 있다.

김옥동과 같이 영미언 평가에서 “유려하면서도 원문의 향취를 잘 살려 낸 문장으로 위대한 개츠비 번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간이 흘러 언어가 바뀌고 김영하본처럼 다른 번역관을 가진 번역본이 등장하자 새삼스럽게 부담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번역사들은 실사 찬사를 받더라도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부분들로 인해 과도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번역사들은 원문과 다른 해석을 했다는 것을 치명적인 오류로 내재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 번역 과정

이제는 번역사들의 작업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알아보려 한다. 이 부분은 번역, 혹은 재번역 과정, 번역을 위한 답사 과정, 공역 과정, 외부 지원 등으로 나누어서 보려 한다. 각각의 과정을 통해 번역사들이 믿을만한

번역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볼 수 있다.

4.2.1. 번역/재번역 작업의 내용

〈표 7〉 번역/재번역 작업의 내용

주제	내용	번역사/출판사
도움 내용 오역 수정 각주	1992년 1월 나는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저자 움베르토 에코와 관련된 영어판 자료와 『<장미의 이름>의 열쇠』의 영어 원서를 찾아내어 장미의 이름의 개역 작업에 착수하고는, 오역이 바로잡히고, 줄문이 칼질을 당하고, 방대한 각주가 붙여진 원고를 탈고하여, 올해 5월에 새로운 원고를 소고하게 됩니다. (장미의 이름<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1)	이윤기 /열린책들
도움 내용 오역 수정 오류 시인	200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강유원 박사의 지적을 검토하고, 3백 가지 지적 중 2백60군데를 바르게 손을 보았다. 그리고는 강유원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고, 그의 지적을 새 책에 반영해도 좋다는 양해를 얻었다.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에다 세 번째로 손을 대면서> 896)	이윤기 /열린책들
오역 수정 도움 내용	결정판이라고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결정판은 개정2판에서도 시정되지 못한 수많은 작은 오역들,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 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늘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여러 단어, 문구와 문장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미국의 소로우 학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얻은 결론을 반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 번역 개선을 위해 한국 영문학계에서 제시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월든 <결정판을 내면서> 8)	강승영/ 은행나무
언어변화 반영	끝으로, 이번에 새로 책을 내면서, 기왕의 착오나 예스러운 표현 중 일부를 손보았다. 그러나 원문 자체가 150년 전의 옛것임도 고려해 빼대는 그대로 두었음을 밝혀둔다. (제인에어 432)	유종호 /민음사
맞춤법/외 래어 짧은 감수성 줄여수정	이번 개정판에서 나는 특별히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 첫째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은 일부 표현을 철저히 규정에 맞추어 고쳤다. (중략) 둘째, 젊은 독자들의 감수성에 맞게 새롭게 번역하려고 애썼다. (중략) 셋째, 비록 오역은 아니더라도 줄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듬었다. (위대한 개츠비 <개정판에 부쳐> 11-12)	김옥동 /민음사
원작파악	번역의 속도는 언제나 창작의 속도보다 느렸다. 내가 최종 결	김영하

도구사용	정권자인 내 소설은 누구의 재가도 필요 없이 그저 내 상상력의 속도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반해, 번역은 이미 저세상 사람인 작가의 의도를 가늠하고, 문맥을 살피고, 사전을 의지하며, 그러도서도 못내 미심쩍어 다시 앞뒤를 살피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위대한 개츠비 229)	/문학동네
참조	여러 연구서를 참조했지만 특히 나보코프 연구자로 유명한 앨프리드 아펠의 『주해판 롤리타 <i>The Annotated Lolita</i> 』는 소설 분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방대한 해설과 주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동반자였다. 블이언 보이드의 『나보코프 따라가기 <i>Stalking Nabokov</i> 』도 작가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였다. 국내 번역본들은 내가 원하는 문장, 표현, 낱말을 찾아내기까지 요긴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중략) 해외 번역본을 검토하는 작업은 문학동네 편집자들과 내가 동시에 진행했다. (롤리타 543)	김진준/ 문학동네

이번 분석에서 조사된 번역과정은 초역보다 재번역 과정이 많았다. 번역사, 혹은 출판사들은 재번역 시 수정 과정과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조사 결과 크게 번역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밝힌 경우와 수정 내용에 대해 밝힌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이윤기, 강승영 등의 후기를 보면 번역사들은 재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참고 문헌 참조, 이메일 교환, 외부 전문가의 지침과 비평 수용 등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정 내용의 경우 수백 군데 잘못된 곳을 바로 잡고, 외래어 맞춤법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각주를 달며,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한 언어로 다듬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재번역에 대해 언급했던 이윤기, 김육동, 유종호, 유명숙 등은 각자 영미언 학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의 판매지수 등 다양한 면에서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작가들이다. 인정받는 번역사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역의 경우도 번역사들의 번역과정은 개역판의 경우와 유사했다. 소설가인 김영하도 험난했던 번역과정을 밝히면서 번역이 창작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김진준은 번역과정에서 참조한 텍스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2.2. 번역 작업 공간과 답사과정

〈표 8〉 번역 작업 공간과 답사 과정

주제	내용	번역사 /출판사
현지번역	소설의 배경에서 그 소설을 번역한다는 것에는 유리한 점이 많다. 뉴욕은 어떤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략) 서울의 골방에서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했던 풍경이 여기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 230)	김영하/ 문학동네
답사여행	1990년 2월 6일 토요일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가는 항공기에 올랐다. 나에게 크레타는 온통 카잔차키스, 그리고 조르바였다. (중략) 나는 왕을 알현하러 들어가는 변방의 병사가 된 느낌으로 크레타로 들어갔다. (중략) 버르고 버르던 기념관 구경이었지만 지금 내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기념관에서 느낌 감흥이 아니다. (중략) 다행히도 나는 거인의 마을 미르티아에서 소인배인 나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스인 조르바 <개역판에 부치는 말> 504)	이윤기/ 열린책들
답사여행	역자가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월든 호수를 찾은 것은 밤새 눈이 수북이 내려 쌓인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대학 시절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책의 무대가 되는 곳을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처음 답사하게 된 것이다. (월든 9)	강승영/ 은행나무
답사여행	1992년 1월초 저는 하던 사업을 정리한 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소로우 문학과 사상의 불모지인 한국에 제대로 된 월든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개월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월든을 번역한 다음 이듬해 봄에 작은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월든 <결정판을 내면서> 7)	강승영/ 은행나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배경에 대한 지식 습득이나 경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김영하처럼 현지에서 번역을 하며 분위기를 느껴보거나 이윤기나 강승영과 같이 일부러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에 방문을 하여 그 곳이 주는 감흥을 느끼고 배경에 대한 지식을 쌓은 후 이를 번역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이윤기의 여행담에서는 이처럼 장소를 직접 방문한 열의와 작품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한편, 원천텍스트 작가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이와 대조적으로 번

역사인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왕을 알현하러 들어가는 변방의 병사”나 “거인의 마을 미르티아에서 소인배인 나 자신” 등의 표현에서 작가를 왕이나 거인으로 자신을 변방의 병사나 소인배로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다.

4.2.3. 공역 과정

〈표 9〉 공역 과정

목적/과정	내용	번역사 출판사
효과적 분위기 전 달	혼자만의 번역이 아닌 공동 번역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비교적 세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다소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번역하기로 한 것은 작품의 의미 전달에 못지않게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호밀밭의 파수꾼 296)	김옥동 염경숙/ 현암사
초고작성 협의 내용검토	두어 차례 바뀌보면서 서로 협의하고 완벽을 기하려고 애쓰는 사이 이런저런 사적이고 공적인 일들이 겹치기도 하여 또다시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략) 전체 분량을 반으로 나누어 초고를 작성했지만, 이후 전체를 각자 수차례 검토하면서 협의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공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오만과 편견 558)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번역학에서 공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한 사람이 번역할 때와 같은 일관성을 갖추기는 어려워도 어느 공동 작업이나 마찬가지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간을 절약하며,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옥동, 염경숙의 경우 <표 9>를 보면 공역을 통해 비속어 번역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이든 번역사가 혼자 하는 경우 문맥의 분위기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세대 차이가 나는 두 번역사가 공동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구체적인 번역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 영미연 번역평가단도 “특히 우리말 표현이 매끄러운 편이며, 역자들 스스로 밝혔듯이 속어와 비어를 요즘 한국의 10대들이 쓰는 비어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237)며 번역사들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다.

윤지관, 전승희의 경우는 공역의 이유보다는 우선 반으로 분량을 나누어 번

역을 한 후 서로 교차해서 검토하는 구체적 공역 절차가 나타나 있다. 예스 24 출판사 리뷰)에도 “두 영문학자들이 10년 동안 충실한 번역과 꼼꼼한 원문 대조 과정뿐 아니라, 서로 교차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탄생한 번역본” 이라 하며 공역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두 학자들은 공동으로 작업하며 작가의 문체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한국어의 유려함을 살리려 노력했다고 한다.

4.2.4. 외부의 도움

번역 과정은 번역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출판사일 것이고 그 이외 외부 전문가, 조언자, 가족 등 다양한 곳과 협조가 이루어진다.

〈표 10〉 외부의 도움

	내용	번역사/ 출판사
참고서적 제공 (동료)	끝으로 번역하기 까다롭기 그지없는 이 작품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과의 황적운 교수에게 감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u>일본 연구사관, 주가 무려 200쪽이나 붙은 연구서를 참고하라고 보내주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여기에 적는다.</u> (허클베리핀의 모험 460)	이덕형/ 문예출판사
오류지적 (전문가)	강 박사에게 한없이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그 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또 오금 저리는 세월을 오래 보내기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강 박사같이 <u>정확한 지식과 예리한 눈을 겸비한 분이 감시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번역계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u> (장미의 이름 <개역판 장미의 이름에다 세번째로 손을 대면서> 895)	이윤기/ 열린책들
번역칭찬 배경지식 제공 (전문가)	초판이 나왔을 때 관계하던 출판사 주간을 시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여러 차례 <u>번역의 뛰어남을 칭찬하시고 열반에 들 때까지 노란 표지(초판)의 『윌든』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던 법정스님입니다.</u> 또 한 분은, <u>만난 적은 없지만 2년간 메일을 주고받는 동안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된 사람, 인생에 진정한 열정을 지녔</u>	강승영/ 은행나무

5) <http://www.yes24.com/24/Goods/402246?Acode=101>

	던 소로우 학자 브래들리 P. 딘(Bradley P. Dean, 1954-2006)입니다. (윌튼 <결정판을 내면서> 8)	
교정 (출판사)	교정을 보느라 수고한 민음사 편집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바이다. (폭풍의 언덕 569)	김종길/ 민음사
교정 (출판사)	끝으로 꼼꼼한 교정으로 어색한 문장을 많이 고쳐준 민음사 편집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343)	이인규/ 민음사
교정 (출판사)	내가 문학동네를 신뢰하는 이유는 편집자들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기 때문이다.(중략) 해당 언어를 전공한 편집자들이 『롤리타』 원서와 내 번역과 해외 번역본들을 한 문장씩 대조했다. (롤리타 546)	김진준/ 문학동네
자금 투자 (출판사)	<열린책들>의 제안은 원고료에서부터 조판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허투루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장미의 이름 <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3)	이윤기/ 열린책들
오류인정/ 수정 (출판사)	이 개역판 작업은, 기왕에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데 성의를 보이고자 한 우리 노력의 작은 열매입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 <열린책들>의 홍지웅 사장에게 우정을 전합니다. (장미의 이름 <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3)	이윤기/ 열린책들
출간 (출판사)	번역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원래 출판을 맡기로 했던 출판사의 방침과 사정이 바뀌어 출판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선뜻 출판을 맡아주신 민음사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만과 편견 558)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재출간 기회 교정 (출판사)	끝으로 다시 한번 작품을 검토할 기회를 주신 「열린책들」의 홍지웅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꼼꼼하게 교정을 보느라 애쓰신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향수 385)	강명순/ 열린책들
문장 다듬기 (젊은이들) 성의 (출판사)	다양한 연령층의 젊은이들이 읽어주어 문장을 다듬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현규 군, 최귀범, 홍기윤, 김소니, 김동자 양에게 감사한다. 몽당연필로 까맣게 고쳐놓은 세인에게도, 이 <글씨 많은>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고쳐준 세건이에게도 감사한다. 새로운 번역 정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민음사 식구들의 세심한 도움과 인내에도 감사드립니다. (데미안 233)	전영애/ 민음사
심적 도움 (가족 친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공역의 가교를 놓아준 김영희 교수, 부족한 능력에 학생과 선생, 활동가를 겸한 바쁜 엄마를	윤지관 전승희/

선후배, 스승)	사랑하며 잘 자라 준 전승희의 두 아이 민과 진, 그리고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 스승들께 도 감사를 표한다. (오만과 편견 559)	민음사
----------	---	-----

<표 10>에서 볼 수 있듯 번역사들은 후기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위의 12가지 사례 중 8번에 걸쳐 김종길, 이인규, 이윤기 등 여러 번역사들이 투자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간이나 재번역의 기회를 주거나 세심한 교정·교열을 해준 출판사에 감사했다. 이를 통해 번역사의 만족도나 번역 품질과 출판사의 노력이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역사들은 참고 문헌을 제공(이덕형)하거나 번역에 대한 칭찬(강승영) 오역에 대한 지적(이윤기)을 통해 더 나은 번역이 있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했으며 그 외 두 경우는 문장을 다듬어 주거나 공역의 다리가 되어 주거나,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준 주변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이윤기의 경우 오류를 밝혀준 동국대의 강유원 박사에게 감사를 하면서 우리 번역 풍토에서 이런 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감사의 말씀을 통해 번역사를 둘러싼 환경, 즉 출판사, 연구자, 가족, 선배, 후배 등 많은 요소들이 번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번역 관련 정보

4.3.1. 판본

<표 11> 판본

내용	번역사/ 출판사
마지막으로 이 번역은 <u>노튼 비준판(The Norton Critical Edition)</u> 을 대본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폭풍의 언덕 569)	김종길/ 민음사
번역은 <u>힐다 마즈던(Hilda Marsden)</u> 과 <u>이언 잭(Ian Jack)</u> 이 편집한 <u>클러렌드(Clarendon) 판(1976)</u> 을 원본으로 삼았다. 클러렌드 판은 설렷이 교정을 봐 내용은 재판보다 에밀리 생전에 나온 초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살렷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의 오식을 교정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짧은 문단을 긴 문단으로, 조지프의 요크셔 사투리를 읽기 쉽게 고친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편집 원칙에 입각한 텍스트이다. (폭풍의 언덕 569)	유명숙 을유문화사
번역 대본으로는 <u>The Name of the Rose(San Diego: Harcourt Brace</u>	이윤기/

Jovanovich Publishers, 1983)를 사용하였습니다. (장미의 이름 <개역판 장미의 이름에 부치는 말> 893)	열린책들
번역텍스트로는 미국의 리틀브라운사에서 나온 1951년도 판을 사용하였다. 그 동안 문고판 단행본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이 양장본 초판 텍스트가 이제까지 나온 텍스트 가운데에서는 가장 믿을 만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 296)	김옥동/ 현암사
이 번역판은 1996년 여름, 뉴욕의 랜덤하우스 출판사가 간행한 허클베리핀의 모험: 유일한 종합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텍스트는 작가의 친필 원고를 기초로 뉴욕주립대학(버팔로)의 빅터 A. 도이노 교수가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일한 종합판>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이 텍스트에서 편집자는 작가의 의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히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09)	김옥동/ 민음사
번역은 채프먼이 1813년 원래 출판본에 근거해서 1932-1934년에 수립한 저본을 그대로 사용한 노턴 비평본 (Donald Gray Ed., <i>Pride and Prejudice</i> , New York: Norton, 1993)을 대본으로 했다. (오만과 편견 558)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가장 권위 있는 피츠제럴드 학자 중의 한 사람인 브루콜리 교수는 작가의 자필 원고와 교정쇄 등을 기초로 철저한 텍스트 비평 작업을 거쳐 작가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재구성했다. 놀랍게도 그는 초판본에서 무려 일흔다섯 개에 달하는 잘못된 낱말을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간적 추이를 이해하는 데 지표가 되는 여백을 네 개나 찾아냈고, 의미나 리듬에 영향을 줄 만한 구두점도 무려 1,100개나 바로잡았다. 이 번역판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의 결정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다. (위대한 개츠비 274)	김옥동/ 민음사
번역의 원본은 취리히의 디오게네스 출판사에서 1985년에 발간한 <i>Das Parfum: Die Geschichte eines Mörders</i> 이다. (향수 385)	강명순/ 열린책들
번역 원본으로는 스크리브너사에서 나온 2003년 판을 사용했다(노인과 바다 145)	이인규/ 문학동네
『노인과 바다』를 번역하는 데 미국 뉴욕의 찰스 스크리브너판을 원전으로 삼았다. 그동안 같은 출판사에서 양장본과 반양장본의 형태로 여러 번 판을 달리하여 거듭 출간되었는데도 곳곳에서 탈자나 오자가 엿보인다. 가령 “al he time”은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이 “all the time”의 오식이다. (중략) 이렇게 몇몇 잘못된 곳은 각주에 별도로 밝히지 않고 고쳐 가면서 번역했음을 밝혀 둔다. (노인과 바다 186)	김옥동/ 민음사
번역 대본으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1993년 판을 사용했는데, 이 판본에 함께 수록된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관하여』는 사정상 번역하지 않았음을 역시 밝힌다. (채털리부인의 연인 343)	이인규/ 민음사

번역의 원본을 밝힌 경우는 8개였으며 단순히 판본의 이름을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김옥동의 『위대한 개츠비』, 『허클베리핀의 모험』, 『호밀밭의 파수꾼』 등과 유명숙의 『위더링 하이츠』 등은 자신들 번역의 판본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김옥동은 『노인과 바다』의 경우 스크리너 판본을 의 원전으로 삼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오탈자는 번역사가 문맥에 맞게 이해하여 바꾸었음을 밝혔다. 이인규는 번역에 특정 원본을 사용하였으나 그 중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관하여」라는 결텍스트는 번역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미연 평가단은 “상세한 역주가 달렸으며 서지학적 신뢰도도 높은 원본을 선택함으로써 번역의 충실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한 경우라고 하겠다”(373)고 평가했다. 번역에 있어 좋은 판본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이를 밝혀 주는 것이 품질 높은 번역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번역 평가자들은 번역사가 어떤 판본을 사용했고 그 판본의 가치가 어떤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번역사들이 자신의 판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출판사나 번역사 별로 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민음사나 열린책들에서 출간된 번역본들 경우에 구체적인 판본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번역사 별로 보면 판본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것은 김옥동 번역사로 본고의 조사 대상 4권 모두에서 판본을 밝히고 있어 판본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알 수 있다.

4.3.2. 삽화

〈표 12〉 삽화

내용	번역사/ 출판사
원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판에서도 삽화를 실었다. 이 삽화는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처음 넣은 것이 아니고 1883년 영국 초판본과 1884년 미국 초판본부터 실려 있던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초판 텍스트를 출간할 때부터 삽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라이프》지의 삽화가로 활약하던 에드워드 W. 캠블에게 삽화를 그리도록 부탁하였다. (중략) <u>그리므로</u> 이 삽화는 본문의 내용에 못지않게 하부 텍스트로서 자못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10)	김옥동/ 민음사

전체 조사 대상에서 번역사가 작품의 삽화의 중요성까지 언급한 경우는 김옥동이 유일했다. 원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삽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원문이 주는 다양한 향취를 독자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4.4. 전략적 측면: 번역상 문제(비속어, 방언, 은유적 고유명사, 언어유희, 존댓말, 문체)

역자후기는 전반적인 번역방법 뿐 아니라 지역적인 번역관련 문제들에 있어서도 번역사들이 택한 전략에 대해 알게 해준다.

4.4.1. 전반적인 번역 방법 (충실성, 가독성, 문체 등)

〈표 13〉 전반적인 번역 방법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형식중심	이 작품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08)	김옥동/ 민음사
형식중심	흔히 번역은 반역(反疫)이라고들 한다. 어느 한 나라 말로 된 작품을 다른 말로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특히 내용을 전달하는데 치중하는 작품보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더 더욱 그러하다. (호밀밭의 파수꾼 294)	김옥동/ 염경숙/ 현암사
의미와 문체중심	한편으로는 ‘과잉 번역’이 없는지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소 번역’이 없는지 살폈다. 한마디로 원작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옮기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원작의 스타일도 함께 옮기려고 노력했다. (위대한 개츠비 12)	김옥동/ 민음사
형식중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번역이란 역시 힘이 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번역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못지 않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 <개정판에 부쳐> 12)	김옥동/ 민음사
문체 보존	원문 자체의 모호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명료한	김진준/

	문장을 찾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원문의 의미나 뉘앙스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u>그대로 보존하려는 시도였다</u> . 나보코프의 문장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표현조차도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이다.(롤리타 542)	문학동네
원문에 대한 충실성	지나친 운문을 피하고 다소 건조하더라도 <u>가급적 원문에 밀착</u> 하도록 번역하였다. 두어 가지만 예를 들면 <Der Vogel Kampf sich aus dem Ei>라는 핵심적인 문장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대신 아주 오랜 고심 끝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로 원어에 가깝게 바꾸었다. 기존 번역의 매끄러움과 유연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원어에 담긴 치열함을 살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데미안 232-233)	전영애/ 민음사
단어의 충실성	원작의 영어가 일견 쉬운 듯이 보이지만 <u>자칫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u> . 하나만 예로 들면 ‘dolphin’이란 단어의 경우, 기존의 번역본들이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인 ‘돌고래’라고 옮겼지만, 이 단어는 여기서 ‘돌고래’가 아니라 ‘dorado’라는 단어와 함께 ‘만새기’라는 바닷물고기를 지칭하는 어부들 용어로 쓰이고 있다.(노인과 바다 144)	이인규/ 문학동네
문체	폭풍의 언덕은 주로 시에만 손을 댄 역자가 번역한 단 한 편의 소설이다.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에 있어서도 <u>문체는 매우 중요하다</u> 는 요량으로 원문의 문체에 충실하려고 애쓴 점을 특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간행하면서 당초의 번역 문체에 상당한 손질이 가해졌다. (폭풍의 언덕 569)	김종길/ 민음사
문체	작가가 즐겨 쓰는 ‘ <u>묘출 화법</u> ’ 등의 문체를 최대한 살리고자 <u>했 으며...</u> (오만과 편견 558-55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위의 <표13>에서 번역사들은 원문에 대한 언어적, 형식적 충실성과 문체 등 전반적인 번역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번역 이론에서 중심이 된 문학의 형식과 문체 등이 번역사들도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옥동은 번역하는 작품마다 의미와 형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등 문학번역의 기본 목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2. 구체적 번역상의 문제

번역사들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고유명사, 문화적 차이, 언어유희, 방언, 비속어, 제목, 이탤릭체, 비속어 등으로 다양했다. 이는 디미트

리우(Dimitriu)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그는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목, 비유, 언어유희, 지리적 장소명, 고유명사, 고어, 비속어, 시적 유사어 사용 등 번역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준다”(2009: 204)고 분석했다. 번역사들이 이처럼 한 문제에 대해 특정 번역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밝히게 되면 향후 있을 수 있는 번역 비평에 대해 먼저 입장을 변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4.2.1. 고유명사

〈표 14〉 고유명사

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외국어 표기법	고유 명사는 규정된 외국어 표기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했다. (오만과 편견 558-55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우리말 의미로 재창조	이 책에는 인명과 지명으로 야릇한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역자가 임의로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 자신이 힌두스탄어(인도 북부의 표준어) 낱말을 사용하고 그 뜻을 책 끝에 설명해 놓았는데, 그 뜻풀이를 참고하여 역자가 우리말로 지은 것입니다. (하룬의 바다 251)	김석희/ 문학동네

문학번역의 특성 중 하나는 명사의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작가가 새로운 고유명사를 창조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로 아동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같은 고유명사는 번역사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위의 두 번째 경우는 인도의 힌두스탄어를 가지고 창조해 낸 고유명사를 번역사가 ‘시끌이’, ‘와글이’, ‘잠잠이죽’, ‘수다죽’, ‘떠벌이 공주’, ‘수다 왕국’ 등으로 의미를 살린 번역을 한 경우이다. 고유명사의 경우 기본적인 음차번역 방법을 버리고 의미번역을 한 경우 위같이 설명을 해주면 그같은 번역방법을 택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음차번역을 하는 경우도 첫 번째 설명처럼 규정 외국어 표기법을 따랐음을 밝혀주는 것은 번역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4.4.2.2. 낯선 정보 번역

〈표 15〉 낯선 정보 번역

번역 방법	내용	번역사/출판사
주석 연보	오늘날 한국의 독자에게 생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턴 본의 각주 및 다른 비평서의 연구 성과를 참조해서 주석을 달았다. 또 관심 있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인 오스틴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작품의 집필, 개작, 출판 연도를 밝힌 연보를 덧붙였다. (오만과 편견 55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주석	1. 각주는 모두 역자의 주입입니다. 2. 이 역주들은 미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온 여섯 가지의 각기 다른 《월든》의 각주본들과 기타 수많은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들입니다. 3. 그러나 책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각주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월든 <일러두기> 14)	강승영/ 은행나무
도량형	4. 원저자는 길이의 단위로 인치, 피트, 마일 이외에 ‘라드rod’를 사용했지만 한국의 독자에게 생소하므로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여 번역했습니다. (1라드=5.03미터) 5. 인치, 피트, 마일 등의 단위는 미터법으로 고칠 경우 오차와 의미 훼손 문제가 있으므로 원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월든 <일러두기> 14)	강승영/ 은행나무

외국의 문학작품은 낯선 문화소, 도량형 등으로 인해 번역 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범위와 수준, 방법의 결정은 번역사와 출판사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방법은 역주나 각주, 권말 주해나 연보를 추가하는 등 다양하며 추가 정보의 양도 번역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 독자들이 번역사가 왜 특정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4.2.3. 제목번역

〈표 16〉 제목번역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고유명사	에밀리 브론테의 처녀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워더링 하이츠를 번역하면서 내린 가장 큰 결정은 이 소설의 제목으로 <u>몇십년간 ‘통용된 폭풍’의 언덕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Wuthering Heights를 직역하면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이므로 ‘폭풍의 언덕’이 딱히 틀린 번역은 아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워더링 하이츠는 집의 이름이다. (중략) 사람이나 집의 이름이 제목일 때는 고유 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다.</u> (워더링 하이츠 553)	유명숙/ 워더링 하이츠

위의 유명숙은 특별히 ‘워더링 하이츠’라는 제목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미언 비평가들은 “특히 텍스트 판본에 대한 설명과 제목을 ‘워더링 하이츠’로 번역한 데 대한 논의는 다른 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359)라며 작가의 이러한 논의가 더 좋은 제목을 찾기 위한 그의 노고를 반영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번역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비평가나 독자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2.4. 이탤릭체

〈표 17〉 이탤릭체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강조 고딕체	원문 중 이탤릭체로 강조된 부분은 번역을 통해 그 강조점을 소화하거나 고딕체로 표기했으며.... (오만과 편견 558-55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영어의 이탤릭체는 종종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윤지관·전승희는 번역문에서 원문에 있던 강조를 언어적으로 바꾸어 표현해 주거나 고딕체로 바꾸어 주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흔하지 않은 고딕체가 번역본에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다.

4.4.2.5. 언어유희와 유머

〈표 18〉 언어유희와 유머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새로운 언어유희	이 이야기에는 말장난이 많다. (중략)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장난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결코 옮길 수 없는 유머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없을 테니 우리말로 옮기거나 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중략) 그래서 원본에 충실하면서 우리말의 <u>운율이나 글의 재미를 살리려고 노력했다.</u> 능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어 원작의 재미를 살리려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10-211)	김경미/ 비룡소
원문유지 설명추가	이 책은 영어를 한글로 옮긴 번역서이기 때문에 그 말장난이나 노래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든 옮긴이 주를 보면서 우리 생활에서 <u>말과 논리가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u> (거울 나라의 앨리스 214)	손영미/ 시공 주 니어

위의 두 번역사는 언어유희 번역에 있어 상반된 번역 방법을 택했다. 김경미는 우리말로 새로운 언어유희를 창조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손영미는 옮긴이 주를 통해 언어유희를 설명해 주는 방법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설명 추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우선 원문을 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왜 현재의 번역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원문에 언어적으로 충실한 번역과 원문의 유머를 살린 창의적인 번역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김경미의 경우 새로운 한국어 언어유희 표현을 만들어 원문에 대한 언어적 충실성을 버릴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원문과 비교를 하는 비평가들이나 독자들이 그의 번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4.2.6. 방언

〈표 19〉 방언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우리나라 지역방언	작가 자신이 「일러두기」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에는 미국 남서부 지방의 사투리가 나오고, 그것도 한 사투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투리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낸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략)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하여 충청도 사투리나 호남 사투리 따위를 적당히 사용해 보았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08-609)	김옥동/ 민음사

지역방언 또한 번역상 어려움을 주는 문제로 위의 경우는 다양한 전략 중 목표어권 지역방언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번역사의 말처럼 그대로 옮겨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원문과는 다른 지역색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음에도 특정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2.7. 비속어

〈표 20〉 비속어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유행 비속어 옛 비속어	속어나 비어도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속어나 비어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 의상과 같아서 그것이 유행하던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하지만, 그것이 쓰이던 시대가 지나면 그 의미는 곧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속어나 비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몇몇 속어나 비어를 구사해 보았다. 어떤 것은 한물 지난 낡은 유행어처럼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유행어에 둔감한 세대들에게는 자칫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07)	김옥동/ 민음사
청소년들	이 책의 역자들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영어의 속어와 비어를 어떻	김옥동

<p>사용하는 말투</p>	<p>게 하면 우리말로 옮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무척이나 고심하였다. (중략) 그래서 역자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시중에 유행하던 속어와 비어들을 수집하기도 하였으며 그 관계 문헌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특히 홀든 콜필드와 같은 청소년 세대들과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해 온 속어와 비어에 관심을 두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러한 속어와 비어를 어떻게 원문의 적재적소에 집어넣느냐 하는 데 있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속어와 비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중략) 역자들은 몇몇 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번역문을 읽혀 보기도 하였다. (호밀밭의 파수꾼 295-296)</p>	<p>염경숙/ 현암사</p>
<p>우리말 상용어 대체어</p>	<p>비속어의 경우 일단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말 속어로 가능한 한 가깝게 옮기고자 했지만 간혹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너무 거슬린다고 생각될 때는 좀 더 무난하다고 여겨지는 용어(가령 ‘섹스’나 ‘성기’ 같은 단어)로 대체했음을 밝혀 둔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342-343)</p>	<p>이인규/ 민음사</p>

번역사들은 비속어에 상응하는 우리말 속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김옥동은 일차적으로 비속어의 유행성, 수위 등 고려해야 할 문제, 적재적소 배치의 문제, 유사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 선정의 어려움, 번역 후 유사 집단에 검토 과정 등을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동료 번역사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인규 또한 번역 방법으로 자연스런 속어를 쓰되 좀 더 무난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위의 두 텍스트에서 비속어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번역사들의 고민 과정과 선택한 번역 방법은 그들 번역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4.2.8. 경어체 사용

〈표 21〉 경어체 사용

번역방법	내용	번역사/ 출판사
<p>경어체</p>	<p>일인칭 화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모두 경어체로 옮겼다. 그렇게 함으로서 홀든의 고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역자들은 이 소설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내용에 못지않게 표현 방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 295)</p>	<p>김옥동 염경숙/ 현암사</p>

구어체	허클베리핀의 모험처럼 일인칭 화법에 구어체를 구사하는 고백체 소설은 우리말로 옮기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608)	김옥동/ 민음사
격의 없는 말투	이전의 번역본들에서는 어김없이 개츠비와 니이 존댓말을 하고, 데이지와 개츠비도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어쩌면 20세기 중반의 우리 말글살이에는 적합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이십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서로 높임말을 쓰면서 존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비가 선비를 대하듯 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온 지금, 고작해야 이십대 초반에서 삼십대 초반일 이 인물들이 서로 말을 높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위대한 개츠비 227-228)	김영하/ 문학동네

김옥동은 앞의 두 후기에서 자전적 일인칭 소설의 경우 번역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 형식을 살려주려 했다고 밝힌다. 세 번째 김영하는 삼인칭소설에서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현대의 문맥에 적용할 때 새로운 어투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어에는 드러나지 않는 대우법의 경어 수준은 등장인물간의 관계와 지위, 성격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경우 독자들은 더 쉽게 상황과 인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5. 비평적 측면: 다른 번역이나 번역 풍토에 대한 비판, 자신의 번역관

〈표 22〉 자신의 번역관

내용	번역사/ 출판사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비단 영문학 작품뿐 아니라 외국 문학 작품 번역의 상당수가 <u>일어 번역의 중역이기도 했고, 그 후에 나온 번역서들도 그것을 토대로 작업한 것이 적지 않았다.</u> 번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번역이 몇몇 나왔지만 이 때문에 번역의 의무감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오만과 편견 557-558)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개중에는 문투와 용어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번역판들도 눈에 띄었는데, <u>일본어 번역판을 모두들 똑같이 참고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먼저 나온 판본을 무단으로 베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몹시 씩씩했다.</u> (체털리 부인의 연인 342)	이인규/ 민음사

<p>일을 맡기 전에 국내 번역본 몇 권을 읽었다. (우리나라에서 『롤리타』는 1959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 출간되었지만 그중 세 종은 한 사람의 솜씨다). 그런데 나보코프의 악명 높은 문체를 실감할 수 없었다. (롤리타 539)</p>	<p>김진준/ 문학동 네</p>
<p>한 번역 평가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확인된 이 작품의 번역 본만 해도 역자 스물네 명에 판본이 무려 천두 개나 된다. 판본이 천두 개나 된다고는 하지만 남의 번역본을 운문하거나 표절한 것이 상당수다. (중략)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판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번안’에 가까운 만큼 의역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오역이 눈에 띄었다. (위대한 개츠 비 10)</p>	<p>김옥동/ 민음사</p>
<p>문학 작품이 문화 텍스트의 일부를 이루게 될 때 늘 나타나는 원전의 해체는 누가 개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하지만 번역자의 임무는 원전을 최대한 그대로- 그런 작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는 것이다. (폭풍의 언덕 554-555)</p>	<p>유명숙/ 유훈문 화사</p>

첫 네 가지 후기는 중역과 표절 번역 풍토를 비판하고 있고 네 번째의 뒷부분과 다섯 번째는 원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바꾼 번안에 가까운 번역을 비판하고 있다. 위의 비판을 볼 때 번역사들은 우리나라의 번역 풍토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도 의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료 분석

앞에서 드러났듯이 자신의 심경, 번역방법, 원문판본 등에 대해 역자후기를 남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역자후기는 비평가들에게 번역을 평가하는 ‘지침’을 준다. 역자후기가 있으면 비평가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를 기준으로 역자들이 택한 번역방법과 과정에 의거해 비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번역 전략은 번역가나 출판사가 결텍스트에서 밝히는 의견과 일치”(김순미 2014: 78) 하기 때문에 번역가들의 후기는 충분히 번역비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예는 판본에 대한 언급이다. 4.3.1.에 나타나듯 김옥동은 분석대

상인 네 가지 중의 번역본 모두에서 판본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미언 학자들은 추천본인 김옥동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 검토대상 번역본들 중에 “이 번역본만이 유일하게 원전텍스트를 밝히고 있으며 친절한 역주와 해설이 붙어 있다”(133)고 하였다.

두 번째는 번역 방법에 대한 언급이다. 예를 들어 비속어와 방언의 번역에 대해 4.4.2.6.와 4.4.2.7.에서 김옥동, 이인규 등은 구체적인 번역방법을 제시했으며 영미언 평가자들은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했다. 김옥동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서는 “역자들 스스로 밝혔듯이 속어와 비어를 요즘 한국의 10대들이 쓰는 비어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237)고 하였고 추천본인 이인규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대해서는 “역자해설에서 밝히듯이 이인규 역본에서 ‘고민 끝에 결국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였을 것이다”(377), “이인규 역본은 원작의 비속어를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말 속어로 가능한 한 가깝게 옮기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살만하다”(378) 등으로 역자의 말을 근거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자후기를 근거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추천본인 김옥동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 평가자들은 “번역자는 작품해설 말미에서 (중략) 특히 1인칭화법과 미국 남부지역의 사투리에 주목한다. 이것은 번역자가 단순히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작의 작품성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분위기와 어조를 살리는 데 많은 정성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실제 번역 과정에서 애초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119) 라며 번역사가 시도했다고 밝히는 바가 실제 좋은 번역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경우로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료조사와 작품에 대한 논의 측면이다. 영미언 평가자들은 유명 속의 『위더링 하이츠』에 대해 “서문 격인 작품해설과 번역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번역본들에 비해 충실한 연구와 조사의 결과로 보이며, 특히 텍스트 판본에 대한 설명과 제목을 ‘위더링 하이츠’로 번역한 데 대한 논의는 다른 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359)라고 함으로써 번역의 품질과 후기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다.

결국 문학번역에서 역자후기는 번역 비평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현주(2009)가 밝혔듯 역자후기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번

역에 자신이 있고 논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번역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자후기의 두번째 기능은 “번역사의 가시성을 높여준다”(Dimitriu 2009: 204)는 점이다. 김영신은 이에 대해 “학문적 연구와 별도로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번역사의 가시성은 제고된 듯하다. 국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작가 못지않은 인지도를 누리는 번역사도 존재하며, 번역사들은 다양한 통로, 예를 들어 언론 매체,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번역후기, 저서 등을 통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2012: 9)고 밝힌다.

역자후기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을 높여준다. 첫째, 번역사들의 심경과 감정을 드러내 준다. 독자들은 번역물을 읽을 때 이를 하나의 원문으로 대하고 그 뒤에 있는 번역사의 노고와 감정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다. 텍스트로만 번역을 읽을 때 번역이란 사실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1.1., 4.1.2., 4.1.3., 4.1.4. 등 번역사들이 밝히는 번역전 심경, 번역 동기, 작업시 심경, 번역 후 심경은 그동안 텍스트로만 존재했던 번역사의 내부를 파헤쳐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두 번째 번역사의 가시성은 사회학적 측면으로, 외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후기는 종속적 위치에서 원작을 대하는 번역사들의 입장을 드러내 준다. 즉, 번역사들은 원작을 높은 곳에 놓고 자신을 이에 대해 충실해야 할 존재로 보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다. 특히 비난과 오역시비, 원작에 대한 평가성에서 오는 작업의 고충은 번역사의 작업 환경에 비해 이들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번역사들은 중역과 베끼기가 판치는 번역 풍토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자후기는 이런 견해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후기의 세 번째 기능은 차별화된 번역 방법을 독자에게 홍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번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번역을 분석하고 번역 비평도 한다. 이들에게 역자후기는 번역방법과 과정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그로인해 역자후기는 관심과 지식이 있는 독자들의 번역서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 즉, 후기에는 번역사마다 다른 문체, 번역방법, 전략과 출판사의 번역 방향, 성격 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번역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김순미

(2013)에 의하면 독자들은 역자후기를 통해 김옥동의 위대한 개츠비 번역전략과 김영하의 위대한 개츠비 번역전략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근거해 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넷째, 역자후기는 다른 번역사들에게 번역 방법상 지침을 준다. 예를 들어 역자후기를 통해 드러나는 비속어, 방언, 언어유희, 은유, 문화소 등 문제의 해결법은 동료들의 번역방법과 전략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종합하자면 역자후기는 번역사의 심경과 번역관을 알려 사회 내에서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며, 번역 비평가에게는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다른 번역들과의 차별성을 알리고, 동료 번역가들에게는 번역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6. 결론

번역사가 작업이 끝난 후 그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내용별로 철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역자후기의 내용이 번역사의 감정, 번역 과정, 번역 문제, 판본, 번역 비평과 번역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이들 내용이 번역물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다른 주체들에게 번역사의 가시성, 텍스트 선택, 번역 전략 이해 등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역자후기는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에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선 번역가가 원작가와 비교해 주변인으로 여겨지는 비가시적 상황에서 후기를 작성한다는 것은 번역품질에 대한 번역사의 책임의식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번역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이 있고 힘들게 노력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자후기는 번역 전략, 과정, 의식면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번역사들의 목소리는 큰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우선 그 수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구성, 내용, 형식 등이 “모호하고, 감정적이며, 체계가 없어 번역사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만들

어 낸 것이란 느낌을 준다”(Dimitriu 2009: 204)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 분석을 보면 역자후기의 내용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가의 감정은 모호하더라도 그 자체로 심경을 알려준다는데 의미가 있었고 구체적 번역전략과 판본에 대한 논의, 번역 현실에 대한 비평 또한 값진 것이었다. 이는 향후 번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역자후기 뿐 아니라 그들이 발표한 다양한 텍스트 외적 결텍스트들을 활용할 경우 번역사의 작업 환경과 번역 과정, 심경, 지위,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등 많은 요소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역자후기를 쓰는 번역사 중 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들이 역자후기의 중요성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일반 번역사들은 아직 이에 대해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계와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사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최근 들어 번역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역자후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나 번역계는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성하게 수준 높은 번역물을 생산해내는 번역사들의 역자후기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역방법, 과정 등 행위와 긴밀한 관계를 지닌 출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특정 출판사나 번역사들이 역자후기 작성에 열성적이라는 점도 이것이 번역사 스스로의 인식 뿐 아니라 출판사의 열의나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번역사 스스로 낸 목소리를 가지고 번역사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부족했다. 역자후기를 쓸 정도의 열정이 있는 번역사의 번역 품질이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다른 번역 관련 주체, 즉, 독자, 동료 번역사, 연구자, 학자, 출판사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연구를 통해 번역가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위상 제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번역사들은 번역학 연구에서 세워진 이론과 경험을 기초로 좀 더 체계적으로 후기를 써야 할 것이며 독자들도 역자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서와 번역의 이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번역사를 참여시키는 역자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분리

되었던 이론가와 번역가, 독자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번역의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3) 「결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통번역 교육 연구』 11(3): 5-27.
- _____ (2014)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폭풍의 언덕』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5(1): 51-83.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 연구』 13(4): 7-27.
- _____ (2013) 「번역을 이해하는 은유, 번역을 설명하는 은유 국내 번역사들은 번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번역학 연구』 14(4): 39-59.
- 김옥동 (2013)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읽다』, 이숲: 서울.
- 영미연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파주.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통번역학 연구』 17(4): 101-19.
- 이재오 (2005) 『문화의 오역』, 동인: 서울.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역자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2(2): 211-20.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번역학 연구』 11(3): 247-76.
- 한미선 (2013) 「풍자소설번역에서의 결텍스트 기능 및 특징: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4(4): 201-23.
- Chan, Leo-Tak-hung (2010) *Readers, Reading, and the Reception of Translated Fiction in Chinese*, Manchester UK: St. Jerome.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Hermes* 42: 13-22.
- Cronin, Michael (2006) *Translation and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Dimitriu, Rodica (2009) 'Translator's preface as documentary sources for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7(3): 193-206.
- Genette, Gerard (1997) *Paratexts: Threshold of Interpretation*, Jane E. Lewin (tran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P.
- Koskinen, Kaisa (2000) *Beyond Ambivalence: Postmodernity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academic dissertation,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대상 텍스트

- 강명순 옮김 (2000) 『향수』, 서울: 열린책들.
- 강승영 옮김 (2011) 『월든』, 서울: 은행나무.
- 김경미 옮김 (200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서울: 비룡소.
- _____ (2008) 『허클베리 핀의 모험』, 서울: 시공주니어.
- 김석희 옮김 (2012) 『하루와 이야기 바다』, 파주: 문학동네.
- 김영하 옮김 (2009) 『위대한 개츠비』, 파주: 문학동네.
- 김옥동 엄경숙 옮김 (1994)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현암사.
- 김옥동 옮김 (1998) 『허클베리 핀의 모험』, 서울: 민음사.
- _____ (2010) 『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 _____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민음사.
- 김종길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서울: 민음사.
- 김진준 옮김 (2013) 『롤리타』, 파주: 문학동네.
- 손영미 옮김 (2001) 『거울 나라의 앨리스』, 서울: 시공주니어.
- 안정효 옮김 (2003) 『대지』, 서울: 문예출판사.

- 유명숙 옮김 (2010) 『위더링 하이츠』, 서울: 을유문화사.
유중호 옮김 (2004) 『제인 에어』, 서울: 민음사.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03) 『오만과 편견』, 서울: 민음사.
이덕형 옮김 (2009) 『허클베리 핀의 모험』, 서울: 문예출판사.
이미애 옮김 (2007) 『호빗』,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윤기 옮김 (2000) 『그리스 인 조르바』, 서울: 열린책들.
_____ (2006) 『장미의 이름』, 서울: 열린책들.
이인규 옮김 (2003) 『채털리 부인의 연인』, 서울: 민음사.
_____ (2012) 『노인과 바다』, 광주: 문학동네.
전영애 옮김 (2000) 『데미안』, 서울: 민음사.

【부록 1】 출신 대학별 직업별 구분

- *강명순 고려대졸 전문번역사
- *강승영 서울대졸 월든 전문 번역사
- *김경미 연세대졸 전문번역사
- *김석희 서울대졸 전문번역사
- *김영하 연세대졸 소설가
- *김육동 한국외대졸 한국외대 통번역학과 교수
- *김종길 고려대졸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
- *김진준 연세대졸 전문번역사
- *손영미 서울대졸 원광대학교 교수
- *안정효 서강대졸 전문번역사 소설가
- *염경숙 숙명여대졸 숙명여대 교수
- *유명숙 서울대졸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 *유종호 서울대졸 연세대 문과대학 교수
- *윤지관 서울대졸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 *이덕형 서울대졸 전 연세대교수
- *이미애 서울대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 *이윤기 성결대졸 전문번역사 소설가
- *이인규 서울대졸 국민대 교수
- *전승희 서울대졸 강사
- *전영애 서울대졸 서울대학교 독문과 교수

[Abstract]

**Functions and Contents of Translator's Preface:
Focusing on Translator's Visibility**

Kim, Soon 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ast decade saw a rapid increase in the studies of translators using various sources including statistics, surveys, interviews, and paratexts. This is a new trend because scholars have concentrated their researches on translated texts focusing on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aspects; and readers have not bothered to read paratexts including translator's prefaces as translated texts are read and accepted as originals. "Translator studies" was not even included in Holmes' translation map; and when conducted, it was limited in its scope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ranslators' own voices. The lack of translator studies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nd low status. Thus, the changes in research trend reflects the ascendance of translators in the translation community and enhancement of their responsibil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ors writing a translator's preface and to analyze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translator's prefaces, focusing on how translators recognize their status, responsibility and visibil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ranslator's prefaces in 24 literary translation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traits prominent among these translators are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high level of translation competence. Translator's prefaces contain their explanations on translation processes, emotions in each process, translation strategies and perspectives, serving as criteria on which critics make an evaluation. They also enhance translator's visibility and status, differentiate one translation from others in

terms of translation strategies, and provide other translators and readers with information on translation strategies taken by a translator.

▶ Key Words: translator's preface, translator's visibility,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or's status, sociology of translation

김순미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조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 분야: 번역사회학,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비평, 뉴스번역,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